

시민언론 뉴탐사 좌담회  
2025년 4월 26일(토) 14:00~15:00

# 핵폐수투기STOP세계시민행진(GLOMA) 뉴욕~워싱턴DC

강진구 기자

이원영(GLOMA행진단장)

한윤주(GLOMA후원회이사, 의학박사)

박바우(GLOMA미국실행위원)(온라인)

# 좌석배치

이영희

강진구

한영주

카메라

# 강진구 진행 및 소개

# Korean New Exploration's GLOMA US March Promotion Broadcast (2024-9-19)

## 한국 뉴탐사의 GLOMA 미국행진홍보 방영 (2024-9-19)

[240919][특별기획] 尹이 외면한 후쿠시마 핵폐수 미 대선이슈로 만든다. LA와 워싱턴DC서 10월5일, 7일 세계시민행진 열린다. 뉴탐사



재생(k)

# 이원영 해설

# 2023 1600km Korea-Japan Citizens' Walk from Seoul to Tokyo

서울에서 도쿄까지 ソウルから東京まで From Seoul To Tokyo	방사능오염수 방류중지 한일시민 도보행진 放射能汚染水(処理水)放流中止 日韓市民徒步行進 Korean and Japanese Citizens Walking March to Prevent Dumping of Radioactive Water	From Seoul To Busan 500km 2023年6月18日~7月15日
		From Shimonoseki To Tokyo 1100km 2023年7月16日~9月11日

방사능오염수(처리수)를 버릴지 말지는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한국 일본의 시민들이 함께 1600km를 걸으면서 그 뜻을 서간문집에 담아 일본국회와 내각 그리고 한국정부에도 전달코자 합니다.

放射能汚染水(処理水)を捨ててはならないとは国民が直接意思決定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韓国と日本の市民たちが一緒に1600kmを歩きながらその意思を書簡に込め、日本の国会と内閣そして韓国政府にも渡すことを目指します。

**Seoul**  
서울출발 6월18일(일) 광화문 이순신장군동상

**Daegu**

**Busan**  
부산항출발 7월15일(토) 출발 17:30

**Shimonoseki**  
下關港行進出発 7月16日(日) 08:30

**Hiroshima**

**Nagoya**

**Osaka**

**Tokyo**  
東京日本国会議事堂 到着9月11日(月) 書簡文集 傳達豫定

生命脱核シルクロード

참여문의 010-4234-2134  
leewysu@gmail.com  
이원영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장

參加問合せ : +82-10-4234-2134  
leewysu@gmail.com 李元榮  
yksalan2010@ae.auone-net.jp Kuwano Yasuo

Home Page QR code  
생명탈핵실크로드  
Daum 카페

# Kyoto, June 2024



# STOP ! 핵오염수 해양투기

## 2024 GLOMA

### 뉴욕 세계시민행진



7월6일(토) 오후2시 맨하탄 일본총영사관  
3시반 UN본부 햄마술드광장



KIGAM  
지구사랑  
미술대회  
웹자보에서

미주동포여러분!  
세계의 시민(한국 일본  
아시아 미국 시민)들과 함께,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일본정부의 만행을  
규탄합시다! 오는 7월6일  
오후2시에 일본총영사관  
(49가 Park Ave.)에 모여  
함께 행진하고 선언합시다!

#### 세계시민선언문 요지 (2024-06-08 교토 세계시민행진)

1. 일본 정부는 즉각 해양투기를 중단하고 모든 생명에게 사죄하라.
2. 미국 정부는 지지를 철회하라.
3. 유엔과 국제사회는 대책을 강구하라.
4. 세계시민은 연대하여 응징하자.
5. 세계시민이여, 우리는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책임이 있다.



GLOMA 연락처: 이원영 +82 10 4234 2134 [leewysu@gmail.com](mailto:leewysu@gmail.com)  
NY 박바우 347 233 0700 [bawoo56@gmail.com](mailto:bawoo56@gmail.com)

# New Yorkers (many of whom are Koreans) march in Manhattan on July 6, 2024



GLOMA 2025 NY→DC

걸어서 400km 행진하면서  
핵폐수투기 STOP 캠페인

March 19~  
April 8, 2025

Let's walk  
TOGETHER  
from NY to DC!



# GLOMA Committee



**Sun-jong Lee**  
**President of**  
**GLOMA**



**Rae-kyung Lee**  
**Chairman of**  
**GLOMA**



**Won-**  
**young Lee**  
**March**  
**Leader of**  
**GLOMA**



**Ba-woo**  
**Park**  
**Director of**  
**USA**  
**GLOMA**

# Feb 26 (Wed), 2025

최대보상 한인 최초 상해 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201)741-1114

특허  
AB 공인회계사  
정신 의료법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함.  
T. 718-888-2727  
15-15 Northern Blvd. #111 Flushing

## “日핵폐수 방류 중단하라” 뉴욕~워싱턴DC 260마일 도보 행진

### 반핵운동가 이원영 교수+미동부 한인들+美 시민들, 3월 19일 출발~4월 8일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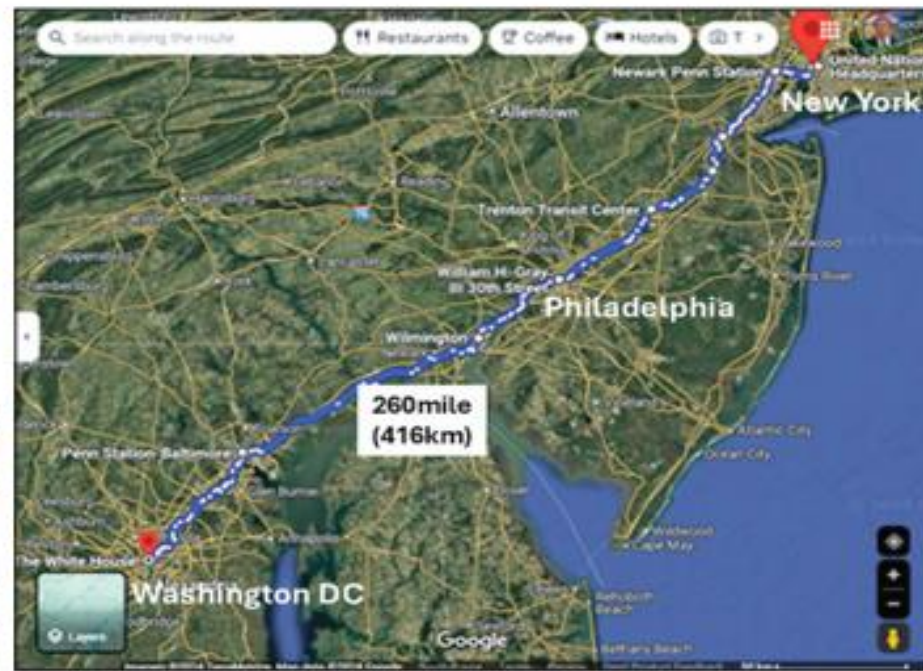


이원영 (전교수 현재 국토미래연구소장)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규탄하는 미주한인들이 3월 19일~4월 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워싱턴 백악관까지 장장 400 Km(약 250마일)를 걸으며 일본의 만행을 전세계에 고발한다.

한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이원영 (전)교수가 미국과 재미한인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 뉴욕-워싱턴 도보행진을 발표했다. 이원영 (전)교수는 현재 국토미래연구소장, 원전위험공의 정보센터 대표로 주로 도보행진을 통해 발원된 운동과 핵폐수 투기 저지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원영 교수는 24일(토) 오후 7시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브로드 애브뉴에 있는 미주한인평화재단 사무실(316 Broad Ave.



구글지도를 활용하여 그린 뉴욕 유엔본부에서 워싱턴DC 백악관까지의 도보행진코스. 주요기차역을 모두 경유하면서 인구밀집지역을 통과하는 코스다.

Palisades Park, NJ)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일본 핵폐수 위험성을 알리는 강연 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참사 다큐영화를 온/오프라인으로 상영했다.

이 영화는 핵 산업과 방사능의 위험을 폭로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재앙 이후 끝없는 탄핵이 이어졌다. 그러나 도쿄전력(TEPCO)과 일본 정부가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제한하면서, 재앙의 세부 사항은 비밀에 가려져 있다. 과학자들과 내부 고발자들의 인터뷰를 담은 이 다큐영화는 체르노빌 이후 가장 심각

한 원자력 사고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힌다. 이 영화에서 “방사능 폐기물은 300년간 분해되지 않는다”는 Dr. Helen Goldicott(원자력 방사선 의황자치료)의 주장이 자세히 소개됐다.

이원영 교수는 “핵문제는 국제

###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니콜리스몰리 로먼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24시간 상담가능  
오늘의 환율과 날씨

날씨	2월 26일(수)	2월 27일(목)	2월 28일(금)
☀️	2월 26일(수)	☀️	☀️
☁️	2월 27일(목)	☁️	☁️
☁️	2월 28일(금)	☁️	☁️

오늘의 환율 / 2월 26일 오후 02시 기준한국시각			
매대 기준율	현찰	송금	T/C
	사실대	파실대	사실대
	1,487.77	1,487.88	1,488.70
			1,418.70
			외화수표
			파실대
			N/A
			N/A



이원영 교수(오른쪽)는 24일 오후 7시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브로드 애브뉴에 있는 미주한인평화재단 사무실(316 Broad Ave, Palisades Park, NJ)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일본 핵폐수 위험성을 알리는 강연 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참사 다큐영화를 온/오프라인으로 상영했다.

금융세력 및 밀접한 관계로 끊임없이 우리들을 사용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위험사고로 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영 교수는 이어 오는 3-4월 열리는 ‘뉴욕-워싱턴DC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반대 행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세계가 환경

범죄문제를 응급하면 점점 확산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한다는것을 미의회에 알리기 위해서 3월19일부터 3주 동안 뉴욕유엔본부에서 워싱턴 백악관까지 미 국민들과 함께 걸으며 핵폐수 투기 STOP 세계시민 행진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사람은 말로 설득이 안된다.

행동으로 외치고,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제  
서야 스스로 생각한다.

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시민들도 하여금  
행진에 가담케 하고, 그 행렬이 점차 길어지도록 하면  
서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것이다.

그 압박에 의해 공약이 성립한다.

# March schedule from March 19 (NY) to April 8 (DC)

Date		Starting Place	Midway Point	Destination	mile
3/18	TUE	(3/17)Arriving at NY Meeting + Preparing			
3/19	WED	Consulate General of Japan NY(11:00) UN Headquarter(11:45)	Korea Town	9.11 Memorial (17:00)	4.9
3/20	THU	9.11 Memorial (09:00)	Hoboken Port	H Mart Little Ferry	10.5
3/21	FRI	H Mart Little Ferry(09:00)		Newark - Penn Station	13.2
3/22	SAT	Newark - Penn Station(09:00)		Rahway Station	11.2
3/23	SUN	REST			
3/24	MON	Rahway Station(09:00)		New Brunswick Station	12.2
3/25	TUE	New Brunswick Station(09:00)		Miele Experience Center Princeton	12.8
3/26	WED	Miele Experience Center Princeton(09:00)		Trenton Transit Center Station	14.2
3/27	THU	Trenton Transit Center Station(09:00)		Bristol Station	11.2
3/28	FRI	Bristol Station(09:00)		Tacony Station	12.1
3/29	SAT	Tacony Station(09:00)		30 <sup>th</sup> Street Station, Philadelphia	10.3
3/30	SUN	REST			
3/31	MON	30 <sup>th</sup> Street Station, Philadelphia(09:00)		Chester Transportation Center St.	12.7
4/01	TUE	Chester Transportation Center St.(09:00)		Wilmington Station	13.3
4/02	WED	Wilmington Station(09:00)		Newark Station(DW)	13.0
4/03	THU	Newark(Wilmington) Station~Baltimore Station(by Train)(11:00)		Halethorpe Station	6.3
4/04	FRI	Halethorpe Station (09:00)		Quality Inn Jessup	10.8
4/05	SAT	Quality Inn Jessup(09:00)		Holiday Inn Washington-College Park	12.4
4/06	SUN	REST			
4/07	MON	Holiday Inn Washington-College Park (09:00)		Washington Union Station	10.5
4/08	TUE	Washington Union Station (14:00)	US Capitol	The White House	2.9
4/09	WED	Return to Seoul (Arriving 4/10)			

# 박바우 해설

# March 19 (Wed) 11:00 Consulate of

11:00

Japanese Consulate General  
in Manhattan

11:45

Ralph Bunch Park in front of  
UN Headquarters

12:30~12:50

32nd St. Koreatown Entrance

01:00~02:00 pm

Lunch ○ ○ ○ Restaurant

02:00 pm

Commemorative photo at  
Koreatown Ent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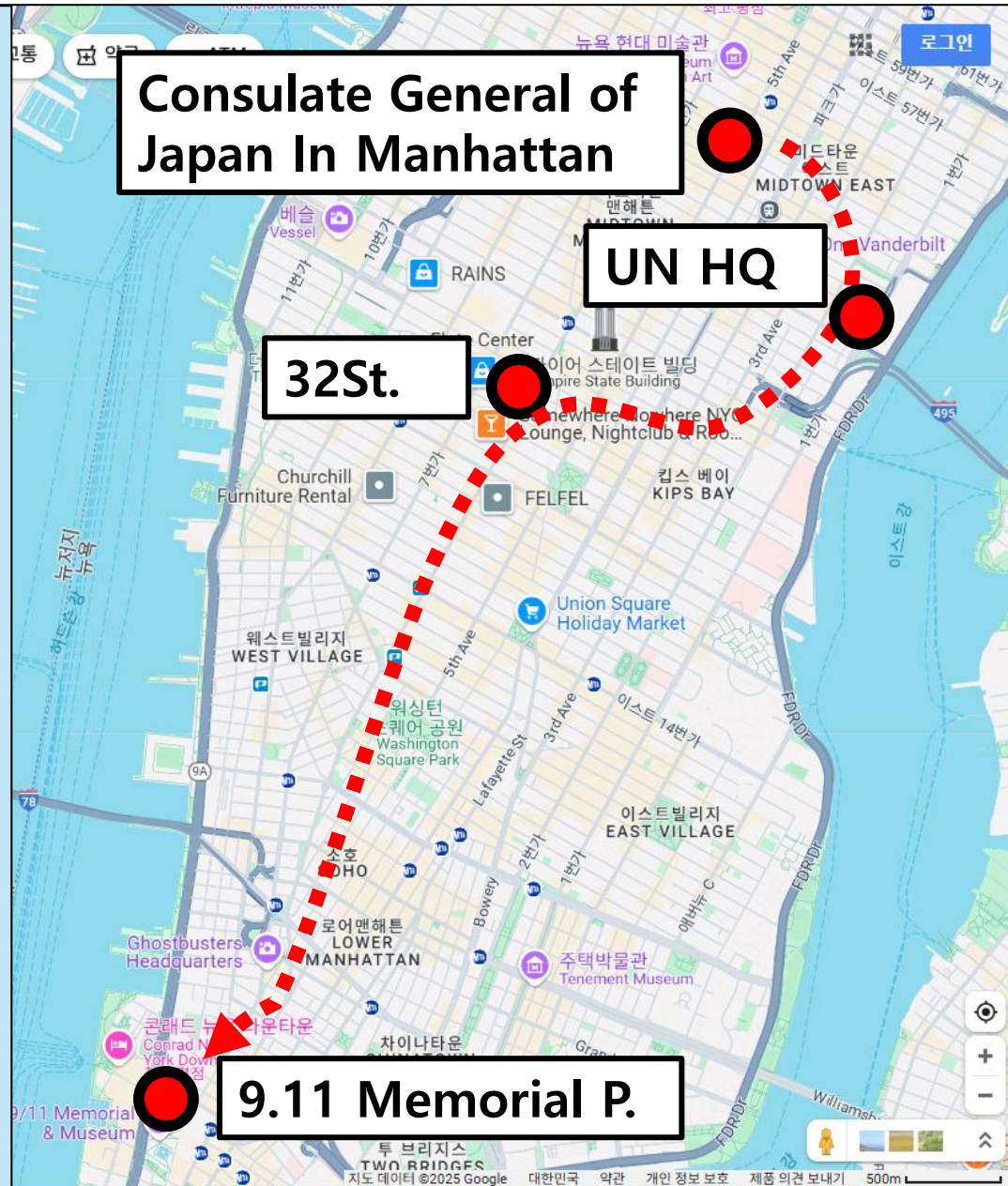
02:10 pm

March begins

05:00 pm

9.11 Memorial Park ends

Those who need to march,  
please take the R Train



# 유엔본부앞 시위 3월19일



유엔 본부 건물앞

[https://youtu.be/MFLS\\_bu8e0g?si=0FXV0-t6YfYgfJhr](https://youtu.be/MFLS_bu8e0g?si=0FXV0-t6YfYgfJhr)



등벽보



홍보물



Korean-Americans who condemn Japan's discharge of nuclear wastewater will walk a whopping 400 km (approximately 250 miles) from the UN headquarters in New York to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from March 19 to April 8 to denounce Japan's atrocities to the world. Professor Lee Won-young emphasized that "the nuclear issue is closely related to international financial capital, and thus is a system that must continuously use uranium," and that we must now break away from the continuous dangers and accidents. He stated the purpose of the march, Professor Lee said, "When state power does something bad, the people must protest and correct it. We cannot stop it without action. Democracy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achieved with words, but rather with actions."

He announced that he planned a "World Citizens' March to Stop Nuclear Wastewater Dumping" by walking with American citizens from the UN headquarters in New York to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for three weeks starting March 19. First, despite the Japanese government dumping 70,000 tons of water 10 times,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has not yet been properly formed. Second, the US states of Massachusetts and New York have clearly prohibited dumping even a small amount of contaminated cooling water, and while the Chinese government is banning the import of Japanese marine products, only the US federal government is allowing dumping. Protests must continue. Third, the Japanese prime minister and the US president have been replaced. We demand this again.

## = 핵연속특기 STOP 세계시민행진 (GLOMA)을 다시 시작하되

나쁜짓을 보고도 나쁘다고 하지 않을 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일본정부처럼 국가권력이 폭력을 휘두르며 지구촌을 위험에 빠뜨릴 때 우리만중은 바로 잡는 행동을 펼쳐야 합니다.

2023년 서울과 도쿄를 잇는 시민들의 1600 Km 도보행진에 이어 2024년에는 '세계 시민선언서' 채택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9일 오늘 우리는 14년전 후쿠시마의 참사를 상기하면서, 맨하탄 유엔본부에서 워싱턴 DC 백악관까지 400 Km의 도보행진을 시작합니다. 바힘 미국의 새 대통령은 세계를 비핵화하겠다는 생수조 핵군축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수있는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에 '세계시민선언서'의 다섯주장을 다시 확인합니다.

1. 인류와 지구생태계를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일본정부는 핵연속특기를 당장 중단하고 지구촌의 모든 생명에게 사과하라.
2. 이를 두둔하는 미국연방정부 그리고 IAEA는 지지를 철회하고, 안전한 대책을 강구하라.
3.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를 지지하지 못한 직무유기를 인정하라.
4. 세계시민이여, 이런유류를 방관하면 우리 스스로 후손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하고, 범리를 고의로 저지르는 국가나 세력을 적극적으로 응징하자.

5. 세계시민이여, 우리는 지구촌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올바른 이정표를 세워나가자.



2025년 3월 19일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세계시민일동  
GLOMA 세계시민행진단



# 행사발행사 보도

**김동식**  
그이평면으로도 믿음이 없다  
404호, 402호 100번선  
1.566-994-4949  
24hr 646.806.7375

**UGG**  
www.ugg.com  
404호, 402호 100번선

**한도담 통증병원**  
교동사고양에서 고양시교동  
비디게이드, 비디게어  
직장보험, 각종 보험가입  
302 Parkside Blvd., Piquette #1  
304호선 917-563-9820

젊은신문 앞서가는신문  
**뉴욕일보**

최대보상 88만 최초 상해 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201)741-1114

4P 공인회계사  
301호 100번선 404호선 100번선  
1.716-888-2727  
15.50번선 100번선

Thursday, March 20, 2025 <제5994호> www.newyorkli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 “日핵폐수 방류 중단하라” 뉴욕~워싱턴DC 250마일 도보 행진 “첫발” 반핵운동가 이원영 교수+미동부 한인들+美 시민들, 3월 19일 출발~4월 8일 도착

**STOP DISCHARGE NUCLEAR WASTEWATER JAPAN Fukushima**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일본 영사관 앞 수요시위**

NY 맨하탄 일본 총영사관 앞 (49th Street)  
299 Park Avenue, New York, NY 10173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마추현안들이 3월 19일~4월 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워싱턴 백악관까지 장장 416 Km(약 250마일)를 도보행진하며 일본의 반핵을 전세계에 고발하는 GLOMA MARCH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관련기사 뉴욕일보 2월 26일자 1면-] “日핵폐수 방류 중단하라” 3월 19일~4월 8일 뉴욕 워싱턴DC 250마일 도보 행진 제1차 기사 협조

행진단의 선두에는 줄기차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 방류를 규탄하고 있는 이원영 한국 수원대 전 교수가 앞장섰다. 핵폐수 방류 중단을 위해 한국은 물론 전세계를 상대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원영(전)교수는 미국과 재미한인들에게 그 위형성

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 뉴욕-워싱턴 도보행진을 선도한다. 이원영 교수는 현재 국제핵연료연구소장,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대표이다.

19일 오전 11시 맨해튼 일본 총영사관 앞에 집결한 행진단은 “일본은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폐수 방류를 즉각 중단하라” “STOP! Japan Fukushima Wastewater into the OCEAN!”는 구호를 외친 후 유엔본부를 향해 출발, 11시 45분 유엔본부 앞 랩소비치 공원에 도착하여 일본의 무책임한 핵폐수 방류를 규탄한 후 오후 1시 맨해튼 30스트리트 한인타운을 향해 출발했다.

GLOMA 행진단은 한인타운에서 시사를 한 후 오후 2시 기원 쉼터 후 브로드 애브뉴를 따라 남진, 오후 4시30분 9·11메모리얼

**STOP! Japan Nuclear Wastewater Dumping**

GLOMA Global MARCH

250 mile 함께 걸을까요?

일본핵폐수투기STOP도보행진  
3월 19일(수) NY 맨해튼 출발  
4월 08일(화) DC 백악관 도착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마추현안들이 3월 19일~4월 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워싱턴 백악관까지 장장 416 Km(약 250마일)를 도보행진하며 일본의 반핵을 전세계에 고발하는 GLOMA MARCH의 첫 발걸음을 19일 내딛었다.

파크에 도착함으로써 첫날 행진을 마쳤다.

행진단은 20일(목) 오전 9시 9·11메모리얼 파크에 모여 맨해튼 다운타운을 거쳐 북상, 조지워싱턴 다리를 건너 뉴저지 리틀버리에 있는 H마트 주차장까지 행진한다.

행진 3일째인 21일(금)은 오전 9시 리틀버리 H마트 주차장을 출발 남진하여 뉴약 펜스타이션까지 행진한다. 일요일은 쉬는 날이다. 행진단은 22일(토) 뉴약 펜스타이션을 출발하여 뉴저지 보웨이(GahWay) 주차장까지 행진한다.

GLOMA 행진단은 “행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뉴욕에서 워싱턴DC까지 전 구간을 걸지 않아도 된다. 맨해튼 행진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시는 사람들은 하루 20km만 걸어해도 좋다. 각자 행진 데로 2-3시간씩 참여해도 된다”고 알리고 많은 동영상을 당부했다.

이원영 교수는 “뉴욕-워싱턴 DC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 행진에 대해 “세계가 환경 문제

문제를 응담하면 점점 확산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한다는 것을 미화해 알리기 위해서 3월19일부터 3주 동안 뉴욕 유엔본부에서 워싱턴DC 백악관까지 미국시민과 함께 걸으며 핵폐수 투기 STOP 세계시민 행진을 기원했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구글과 AI를 활용하여 뉴욕에서 워싱턴DC까지의 도보행진코스, 주요기차역을 모두 경유하면서 인구 밀집지역을 통과하는 코스를 구성했다.

이원영 교수는 “출발지로 뉴욕을 택한 것은 유엔이 없지만 명분은 있다. 2014년 7월에 일본 핵폐수 방류 규탄 집회시위였던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출발하여 뉴저지와 펜타곤까지, 펜타곤을 거쳐 워싱턴DC까지 416km 남진한다. 하루 20km씩 걸으면 20일인데, 불리적으로 걸을 수 없는 구간을 따지면 50km를 된다. 약 30km를 하루 15-20km씩 천천히 걸어서 3주중 걸으면 도착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뉴욕·뉴저지 사고 상해 전문

나폴리 스포츠 로펌 파트너 **정준호 변호사**

917-300-0060 24시간 상담 가능

내 집 마련의 꿈!  
뉴욕/뉴저지/뉴멕시코에서 함께 하세요!

William Lee (NMLS #482330)  
Tel: 201.676.3328

오늘의 환율과 날씨

☀	3월 20일(목) 42도~54도	☀	3월 21일(금) 47도~59도	☀	3월 22일(토) 40도~54도
---	----------------------	---	----------------------	---	----------------------

◎ 오늘의 환율 / 3월 20일 오후 12시 기준(미국산)					
매매 기준율	인	장	송	T/C	외화수표
	달러	엔	금	달러	달러
	1,489.81	1,432.59	1,472.30	1,443.90	N/A

이 교수는 이 도보행진을 ‘GLOMA Between Fukushima and Chernobyl’라고 이름지었다. 후쿠시마원전 폭발이 3월11일이고 체르노빌 원전 폭발이 4월26일이니 그 사이의 행진으로 삼아서 3월19일~4월8일의 기간으로 잡았다.

이원영 교수는 “국가권력이 나쁜 짓을 하면 민중이 항의하여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행동으로 이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감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하고 “유엔에서 백악관까지는 약416km의 인구밀집지역으로서 많은 미국시민이 함께 이 반대행진에 동참하여 걸으면서 이 관련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약 3주간 진행되므로 미국 전역의 시민과 세계각국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확보할 수 있는데다 현장에서 역설이 펼쳐지는 등 미디어가 보도하기 좋아서 여론형성에 유리하다.”며 “메이데이의 행진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기차역으로 하게 되면 편리하다. 기차가 지주 다니지 않은 미국이지만 이반코스의 인구밀집지역은 다르다. 상당히 빈번한 기차통행이 있는 코스타. 기차는 시간표대로 움직이므로 참가자들이 계획적으로 참여하고 이동할 수 있다. 지동차 갖고 오는 이는 기차역무근에 주차해두기도 좋지만, 며칠은 동영상을 찍으셨다.

# 이원영 해설

# 일본계 미국시민 Tony Sahara와 함께



# 허드슨 강 건너기



# 배안에서



# 뉴저지의 저지시티 거리



# 국제결혼한 주부와 그 아이를 만나다



# 일본계미국 시민 Yoko Akashi 와함께 행진



 **Manhatta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 ...

Yoko Akashi · 6시간 · 🌐

Thank you, [Won-Young Lee](#) for marching to stop nuclear waste water dumping from Fukushima nuclear plants. I joined him marching today, 3/20 in NJ. Even though we're only two walking highways and shopping streets, people waved, honked cars and wanted to know more because they're concerned.

[번역 보기](#)



# 뉴저지 시가지 행진 장면



# 둘째날 목적지에 마중나온 동지들



# 하룻밤 신세진 김순상 흥사단 뉴욕지부장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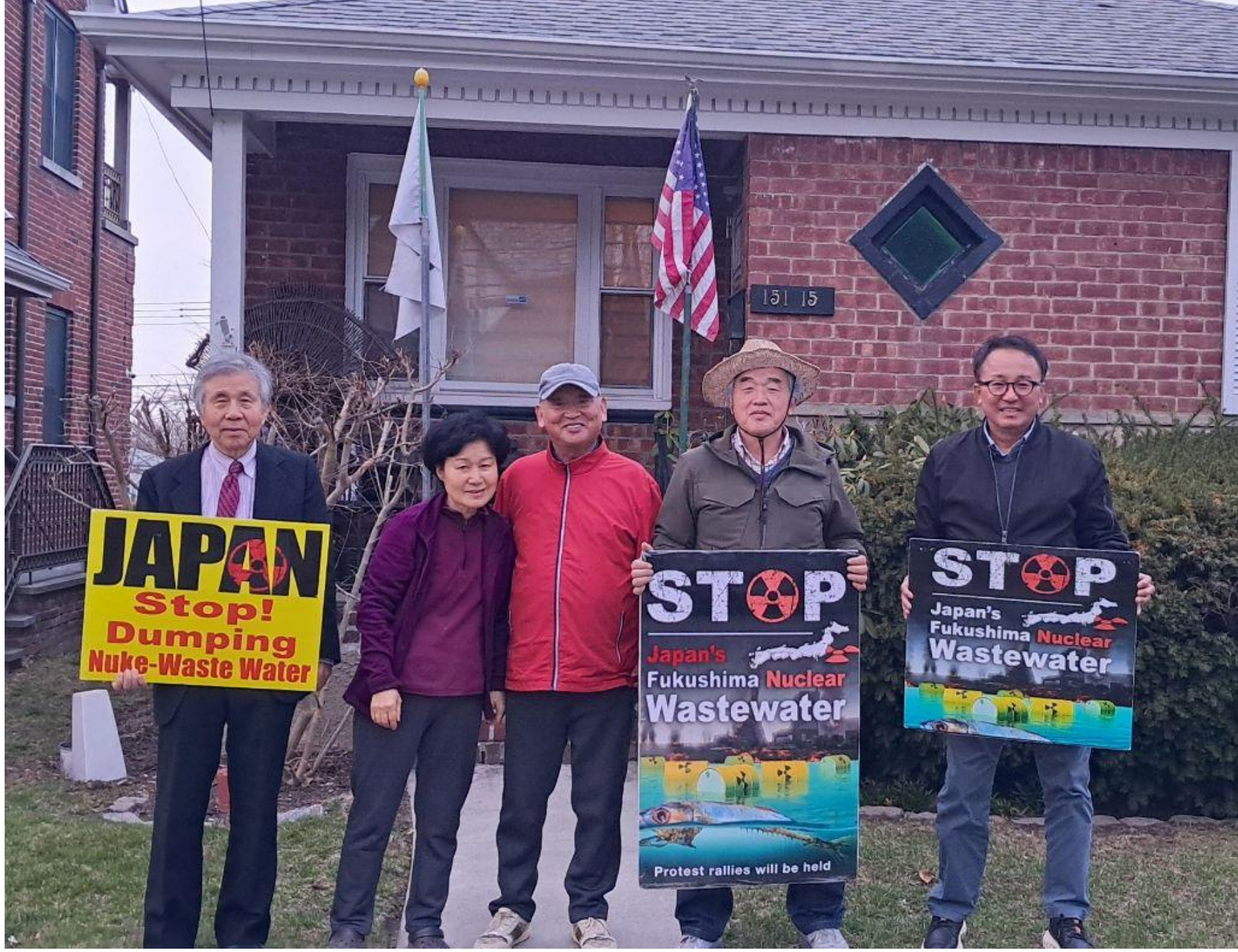
# 핵폐수투기STOP에 관심을 보인 뉴저지시민과



# 마침 토요일이라 행진마친 후 뉴저지의 탄핵시위 동지들과 함께



# 쉬는 날 뉴욕의 이춘범 동지 댁 에서



# 핵폐수투기STOP에 관심을 보인 뉴욕시민과



# 다섯째날 빗속에 모인 한인동포 동지들



# 빛속의 행진





프린스턴 대학 고등연구소

아인슈타인  
동상

오펜하이머



핵무기개발은 2차대전 종식이 목적이긴 했지만  
미국이 아니라도 나치나 소비에트에 의한 핵개발추진  
이 가시화되었던 만큼 인류차원으로 보면 시간문제였  
는지도 모른다.

핵무기의 등장으로 5개국 상임이사회와 유엔총회라는  
대응장치가 만들어진 셈이다.

어떻게 보면 인류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모양새다.

물론 핵무기 감축과 폐기의 커다란 과제는 그대로다.



# 세월호 1인시위 매주 10년해왔던 나경한 동포와





Cold Be

TIPS  
You

**STOP!** Japan Nuclear  
Wastewater  
Dumping

NY

GLOMA  
Global March

March 19 -  
April 8, 2023

250 miles

NEW JERSEY

Let's walk TOGETHER  
from NY to DC!

DC

© 2023 Planning for Environmental Action, Inc. • 1-877-233-8700 84 West Park

# 필라델피아 도착



# 필라델피아에 뉴욕 동지들이 합류



# 박바우 해설

# 필라델피아 시청이 보이는 거리 에서





동포들과 만나서 기념사진

# 필라델피아의 동포들과 기념사진



# 이원영 해설

# 미국 환경단체 홈페이지 메인장면을 장식 하다

## A long... justice

Posted on **March 30, 2025** by [beyonddnuclearinternational](#)

5 Comments



Won-Young Lee has walked from his homeland in South Korea to Tokyo. Now he's on the march in the US, writes Linda Pentz Gunter

### News

[Latest news](#)

[People](#)

[Events and actions](#)

### Articles by Month

[April 2025](#)

[March 2025](#)

[February 2025](#)

[January 2025](#)

[December 2024](#)

[November 2024](#)

[October 2024](#)

[September 2024](#)

[August 2024](#)

[July 2024](#)

# 필라델피아 중앙역에서 만난 미국시민



# 필라델피아 체스터에서 만난 마틴루터 킹목사 벽화





월명턴의 동지들

# 등벽보를 보고 반가워하 는 동양계 월빙턴 시민



# 델라웨어에서 만난 노부부



**STOP!** Japan Nuclear Wastewater Dumping

GLOMA GLOBAL MARCH

March 19~ April 8, 2025

Let's walk TOGETHER from NY to DC!

DC

# 월빙턴 역에서 마주친 바이든 전 대통령



기차를 기다리는 도중 재미있는 큰 사건이 벌어졌다. 기차가 연착되어 의아하던 차에 웅성거리는 소리에 돌아보니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바이든대통령이 보이고, 그러자 곧 워싱턴 DC행 특급열차가 멀리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와 경호원들이 열차앞쪽으로 가기 위해 필자 앞을 지나는 순간 손을 흔들었다. 아무도 손을 흔드는 이가 없었기에 아마도 그의 눈에 금방 눈에 띄었으리라. 그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더니 필자에게 미소로 반가운 표정을 지으려는데, 그 순간 내 몸에 부착된 등벽보를 보고서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는 것이었다. 거의 1초 순간에 지나가면서 발생한 일이었다~ 그가 지나간 후 나는 셀피실력을 발휘하여 경호원의 시선을 따돌리면서 위 사진과 같이 그를 렌즈에 포착하였다.



# 볼티모어 도착을 알린 미주한국일보기사

## “일본은 핵 폐수 방류 중단하라”

뉴욕~워싱턴 도보 행진팀, 볼티모어 도착...8일 DC서 집회

일본의 핵 폐수 방류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한인들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나섰다. ‘핵 폐수 투기 STOP 세계 시민행진’은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250마일 도보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에서 참가한 이원영 전 수원대 교수는 “국가 권력이 나쁜 짓을 하면 민중이 일어나 바로 잡아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출발한 이들은 뉴저지, 필라델피아를 거쳐 3일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도착했다. 각 도시의 기차역 앞에서 일본의 핵 폐수 방류를 규탄하는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날도 버지니아에서 나영은, 신행우 씨가 볼티모어 펜 스테이션을 방문해 캠페인에 동참했다.

도보 행진의 마지막 구간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일(화) 워싱턴에 도착해

오후 2시 유니언 스테이션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연방 의사당을 지나 백악관 앞으로 행진하며 3주간의 대장정을 마치게 된다. 이날 워싱턴 한인들의 참여를



3일 볼티모어 펜 스테이션 앞에서 일본의 핵 폐수 방류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바라며 이번 행진이 핵 폐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미국과 국제사회 여론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제원 기자)

# 볼티모어의 동지들



# 워싱턴DC 근교의 아이들과



# 외국인 관광객들과



한국에서 4월4일 파면  
확정후

4월5일  
반 트럼프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발생하다.

Be like S.Korea!  
라는 구호가 등장



# 원불교 워싱턴DC 교무님들과



# 어느 워싱턴 DC 시민과



# 4월 8일 워싱턴 DC 행진코스



March through Washington  
DC on April 8th  
Arriving at the White House  
via Congress

Navigation app interface showing a route from Washington Union Station to the White House via the United States Capitol. The route is marked with a blue line on the map and a red pin at the destination. The estimated walking time is 1 hr 5 min and the distance is 2.9 miles. The route is via First St 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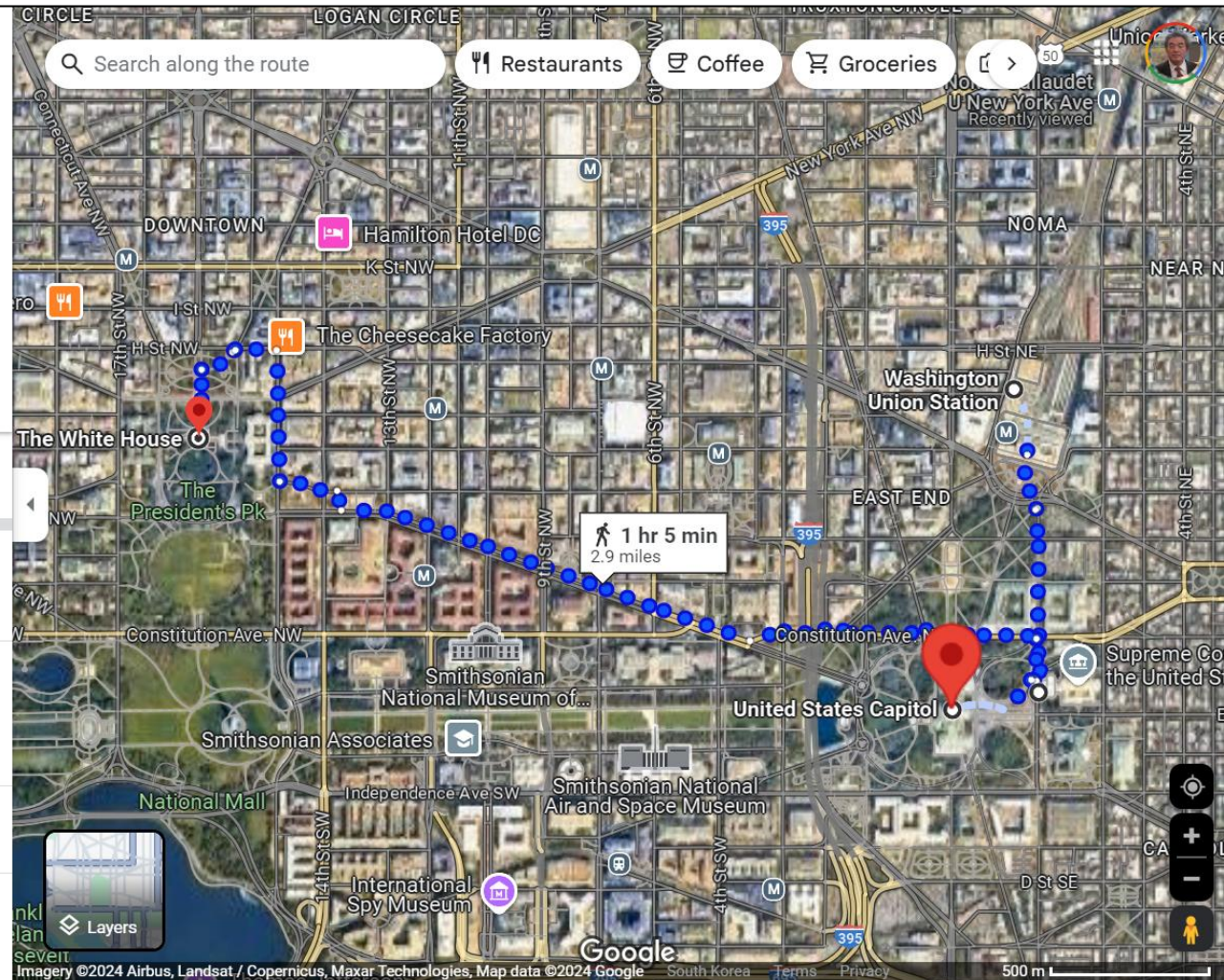
Options

- Send directions to samsung SM-M336K
- Copy link

via First St NE 1 hr 5 min 2.9 miles

Details

Mostly flat



# 박바우 해설



미의회 의사당 앞에서

# 백악관 앞에서



# 백악관앞에서 세계시민선언문을 낭독하는 동지들



# 핵폐수투기STOP세계시민행진(GLOMA)을 마치며

나쁜 짓을 보고도 나쁘다고 말하지 않을 때 인류의 위기가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나쁘다는 것은 뉴욕주와 메사츄세츄주가 증명했습니다.

왜 바이든정부는 나쁜 짓을 비호했나요?

이제 트럼프정부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희는 지난 3월19일 맨하탄유엔본부앞을 떠나 백악관까지 250마일을 걸어왔습니다. 많은 미국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걸어왔습니다.

이제 요구합니다. 반드시 중지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2024년 여름에 채택된 세계시민선언서의 다섯가지 사항을 확인하면서 대행진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1. 인류와 지구생태계를 의도적으로 위협에 빠뜨리는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투기를 당장 중단하고 지구촌의 모든 생명에게 사죄하라.
2. 이를 두둔하는 미국정부 그리고 IAEA는 지지를 철회하고 안전한 대책을 강구하라.
3.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를 저지하지 못한 직무유기를 반성하라.
4. 세계시민이여, 이런 오류를 방관하면 우리 스스로 후손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하고, 범죄를 고의로 저지르는 국가나 세력을 적극적으로 응징하자.
5. 세계시민이여, 우리는 지구촌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올바른 이정표를 세워 나가자.

2025년 4월 8일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세계시민일동 그리고 GLOMA 세계시민행진단

**김동석**  
그 어떤 만으로도 믿음이 건다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  
1.866-994-4949  
24hr 846.808.7375

**UGG**  
www.aboevillage.com  
www.ugg.com

**해담통증병원**  
교통사고/상해사고/각종사고  
피디케어, 배디케어  
작장모함동, 각종 보험취급  
3622 Person Blvd, Flushing NY  
11355  
평일 917-563-5820

최대보상 현인 최초 상해 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201)741-1114

특허  
공인회계사  
중앙 아파트 관리사무장을 역임함.  
1.718-888-2727  
15-15 Northern Blvd. #111 Flushing

# “日핵폐수 방류 중단하라” 유엔본부~백악관 250마일 도보 행진 “완결”

## 반핵운동가 이원영 교수+美동부 한인들+시민들, 3월 19일 출발~4월 8일 도착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반핵운동가 이원영 교수와 미주 한인들과 미국 시민들이 3월 19일~4월 8일 뉴욕 맨해튼에 있는 유엔본부 앞에서 워싱턴DC



모자 쓴 사람이 이원영 교수, 오른쪽은 백악관 앞엔 오른쪽이 이원영 교수, [사진 제공=GLOMA MARCH]

### 의사당·백악관 앞에서 “지구촌 구하자” 성명 발표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반핵운동가 이원영 (전)교수+美동부 한인들+ 시민들이 3월 19일~4월 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워싱턴DC 백악관 까지 장정 416 Km(약 250마일)를 도보행진 하며 일본의 민행을 전세계에 고발한 핵폐수투기STOP 세계시민행진 (GLOMA MARCH)이 8일 오후 2시 목표지점인 워싱턴DC 유니온 기차역, 2시30분 의사당, 4시 백악관 앞에 도착하여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장정 21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관련기사 뉴욕일보 2월 26일자 1면, 3월 20일자 1면·“日핵폐수 방류 중단하라” 3월 19일~4월 8일 뉴욕-워싱턴DC 250마일 도보 행진 제하 기사 참조]**

행진단의 선두에는 출기차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 방류를 규탄하고 있는 이원영 한국수원대 전 교수가 앞장섰다. 핵폐수 방류 중단을 위해 한국

하는 코스를 택했다. 하루 평균 20Km 정도를 걸었다.

행진단은 “행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뉴욕에서 워싱턴DC 까지 전구간을 걸지 않아도 된다. 매일매일 행진이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사람들은 하루 구간만 참여해도 좋다. 각자 형편대로 2-3시간씩 참여해도 된다”고 알리고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구간마다 한인들과 미국주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행진했다.

이원영 전 교수 등 핵폐수투기STOP세계시민행진(GLOMA)단은 7일 오후 2시30분 워싱턴DC의 사당 앞에서 “나쁜 짓을 보고도 나쁘다고 말하지 않을 때 인류의 위기가 있다. 일본정부가 나쁘다는 것은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가 증명했다. 왜 바이든정부는 나쁜 짓을 변호했다? 이제 트럼프정부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 2024년 여름에 채택된 세계시민선언서의 다섯가지 사항을 확인하면서 대행진의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①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의도적으로 위협에 빠트

리는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투기를 단장 중단하고 지구촌의 모든 생명에게 사죄하라 ②이를 두둔하는 미국정부 그리고 IAEA는 지지를 철회하고 안전한 대책을 강구하라 ③유엔과 국제사회는 이를 지지하지 못한 직무유기를 반성하라 ④세계시민이여, 이런 오류를 방관하면 우리 스스로 후손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하고 범칙을 고의로 저지르는 국가나 세력을 적극적으로 응징하라 ⑤세계시민이여, 우리는 지구촌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올바른 이정표를 세워나 가자.”고 외쳤다.

이후 행진단은 인근 식당으로 옮겨 뒷풀이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영 전 교수는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의 민권센터, 한국에서 온 정연진 AOK대표, 몇차례 왕복은 전으로 행진을 함께 한 박바우 동지, 박지나, 노예리, 강재원님, 드 그동안 자택의 숙소를 제공해주신 김치민, 남만호, 김순상, 이재수 등 지 부부 등 구간마다 지역에서 함께

행진해준 분들 모두 감사하다. 특히 일본계 미국시민으로 함께 행진하며 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준 Tony Sahara, Yoko Akashi, 자신의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해준 Beyond Nuclear의 Linda Pentz Gunter, 무엇보다 음으로 양으로 늘 성원해주신 GLOMA33인회, 응원을 보내준 수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뉴욕·뉴저지 사고 상해 전문  
나무리 스포틱 로펌 **정준호 변호사**  
파트너 **917-300-0060** 24시간 상담 가능

---

**CLUB SAVINGS ACCOUNT**  
**정기적금**  
New Millennium BANK  
4.00% 1YR/APY  
With Opening Free Checking Account

**(201)585-6090** **오늘의 환율과 날씨**

비	4월 11일 금 \$1.05 ~ \$1.07	비	4월 12일 토 \$1.05 ~ \$1.07	구름	4월 13일 일 \$1.05 ~ \$1.07
---	-----------------------------	---	-----------------------------	----	-----------------------------

◎ 오늘의 환율 / 4월 11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매매 기준율	현 살	현 팔	송금	T/C	외화수표
	1,477.71	1,426.89	1,466.50	1,438.10	N/A

Beyond Nuclear의 Linda Pentz Gunter, 무엇보다 음으로 양으로 늘 성원해주신 GLOMA33인회, 응원을 보내준 수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고 말했다.



“日 핵폐수 투기  
당장 중단하라”

세계시민행진은 지난 8일 DC 연방의사당에서 백악관으로 걸어  
가며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규탄했다.

## 뉴욕~워싱턴 250마일 걸었다

“나쁜 짓을 보고도 나쁘다고 말하지 않을 때 인류의 위기가 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일본의 핵폐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며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250마일을 행진한 이원영 전 수원대 교수는 지난 8일 백악관 앞에서 세계시민선언서를 낭독했다.

세계시민선언서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뉴욕과 매사추세츠에서 이미 증명됐다며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의도적으로 위협에 빠트리는 일본 정부는 핵오염 수 투기를 당장 중단하고 지구촌의 모든 생명에게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두둔하는 미국 정부와

IAEA는 지지를 철회하고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유엔과 국제사회도 이를 저지하지 못한 직무유기를 반성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교수는 “걸으면서 만난 이름 모를 많은 분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응원해 주었다”며 “우리는 지구촌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올바른 이정표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워싱턴 DC 유니언 역, 연방 의사당, 백악관 앞에서 진행된 일본의 핵폐수 투기 규탄 집회에는 뉴욕에서 내려온 행진 팀을 비롯해 워싱턴 한인들도 함께 했다. <유제원 기자>

“나쁜 짓을 보고도 나쁘다고 말하지 않을 때 인류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일본의 핵폐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며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250마일을 행진한 이원영 전 수원대 교수는 지난 8일 백악관 앞에서 세계시민선언서를 낭독했다.

세계시민선언서는 ‘일본 정부의 잘못은 뉴욕과 매사추세츠에서 이미 증명됐다’며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의도적으로 위협에 빠트리는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투기를 당장 중단하고 지구촌의 모든 생명에게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두둔하는 미국 정부와

IAEA는 지지를 철회하고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유엔과 국제사회도 이를 저지하지 못한 직무유기를 반성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교수는 “걸으면서 만난 이름 모를 많은 분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응원해 주었다”며 “우리는 지구촌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올바른 이정표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워싱턴 DC 유니언 역, 연방 의사당, 백악관 앞에서 진행된 일본의 핵폐수 투기 규탄 집회에는 뉴욕에서 내려온 행진 팀을 비롯해 워싱턴 한인들도 함께 했다. <유제원 기자>

# 이원영 해설

= 핵폐기투기 STOP 세계 시민행진 (GLOMA) 33인회 =

나쁜 짓을 보고도 나쁘다고  
하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  
합니다.

우리에게만 막을 힘이 있습니다.  
일본도 총리가 바뀌고 비극도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이젠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2025년 봄, 맨해튼의  
UN 본부에서 워싱턴 D.C.의

백악관까지 400 Km를  
한달 가까이 세계 시민과 함께  
걸으면서 핵폐기투기 STOP  
을 외칠 것입니다.

이 일을 함께 하고 후원해  
주실 동지를 모십니다.

2024년 12월

GLOMA 33인회 대표 이래경

GLOMA 행진간장 이원영



# <GLOMA33인회>

2025년 4월25일 현재 멤버 22인

- 2023년 한일시민도보행진이후 핵폐수투기중단할 때까지 투쟁하는 후원모임
- GLObal citizens MArch to stop dumping nuclear wastewater
- 추진중인 계획은, 2025봄 미국NY-DC(유엔본부/백악관) 400km세계시민행진  
<https://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81>
- 1인당 100만원이상 후원하셨거나 후원하실 분 (기납부+약정)

## [한국]

이선종(참여연대 (전)대표, 원불교 천지보은회 대표)  
이래경(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이원영(GLOMA행진단장)  
김용춘(하남시민연대대표)  
한윤주(의학박사)  
신대영(사업)  
호승호(사업)  
정준일(GLOMA실행위원)  
김세빈(신부, 천주교 청주교구)  
김미진(청주시민, 마님한식뷔페 대표)  
이옥선(광주시민, 건설인)  
고청심(서울시민, 과학기술인)

## [일본]

도상태(사업)  
김항승(GLOMA실행위원)

## [미국]

박바우(뉴욕동포, GLOMA실행위원)  
강준화(북미민주포럼 대표)  
유해정(뉴저지동포)  
양호(전 뉴욕평통회장)  
김갑송(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  
정영민(목사, 뉴저지 미국개혁교단(RCA))  
전승희 (보스턴칼리지 교수, 뉴잉글랜드한반도평화캠페인 공동대표)  
김순상(홍사단 뉴욕지부장)

# 한윤주 해설

# GROMA 참여 동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데 국가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민간 단체에서 핵오염수 바다 방류 저지 행진을 하는 것을 보고 참여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건강한 생태계를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이 일에 나서야 한다.

바닷물과 공기는 경계가 없다. 후쿠시마 핵 폐수를 바다에 버리게 되면 해안은 물론이고, 바다 생태계 전체를 파괴하는 일이며, 인류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다. 바다속 모든 생물들과 주변 해안가에 사는 생물들이 오염된다.

# 바다의 오염은

1. 식탁에 올라온 생선이나 어패류 섭취를 통해 몸속 내부 장기가 방사능에 오염된다. 내부 장기 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특히 방사능은 몸속 점액에 침착되며, 해독이 어렵다.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절반 이상은 바다를 통해 얻는다.

2. 호흡기를 통해 방사능에 오염된다. 산소는 혈액을 통해 공급되는데, 방사능에 오염된 혈액은 세포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세포에서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없다. 인간의 생존은 먹고 마시며 숨쉴 수 있어야 한다.

핵 폐수 바다 방류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가 건강한 생태계를 지키려는 것이 지금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 이원영 해설

핵폐수투기STOP 한국어 웅변대회

STOP Dumping Nuclear  
wastewater

## 핵발전소에 대한 대응체제가 부재하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목하에 핵발전소가 지구촌에 퍼지면서 문제는 복잡해졌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제대로 대응해가야 할 곳이다.

첫째, 핵발전소로부터 핵무기원료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진행된 결과, 지금의 핵무기보유 14개국(보유후 폐기한 4개국 포함).

둘째, 핵폐기물은 안전한 관리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물질인 것. 독일 탈원전도 부모세대가 후손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윤리적 이유.

셋째,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가 말해주는 사고의 위험이다. 핵무기는 인류의 통제아래 있지만 핵발전소는 자연재해나 우발적인 재해에 속수무책.

# 핵발전소의 근본문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과학적 연구에 머물러야 할 영역이 전기생산이라는 돈벌이 산업영역으로 진출한 것이 문제.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기는 일부이고, 주된 생산물은 사용후핵연료 즉 핵폐기물.

국제금융자본은 우라늄광산을 독점하면서 핵연료봉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 편익을 지속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착화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자본의 흐름에서 떡고물을 챙기는 이익집단과 세력.

언론은 그 핵심 이익세력이다. 언론들은 원전의 문제점을 가리고 세뇌에 열올리기. 가령 SMR(소형모듈형원자로)은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데다 핵폐기물은 더 많이 배출하는 기형적 존재임에도 말이다.

# 지구촌 차원의 새로운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행사를

문제는 핵마피아가 서식하는 자본권력 스스로 자기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점.

이런 상황에서 핵폐수투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시민운동이 미미하게 존재.

국가단위로는 중국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지방정부로는 미국 뉴욕주와 매사츄세츠주가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요원하다.

무엇보다 지구촌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핵발전소 억제여론과 그 힘이 작동될 필요가 있는 것

# 시민사회가 강하고 핵폐수투기 이슈에 민감한 한국에서 이를 규탄하는 국제웅변대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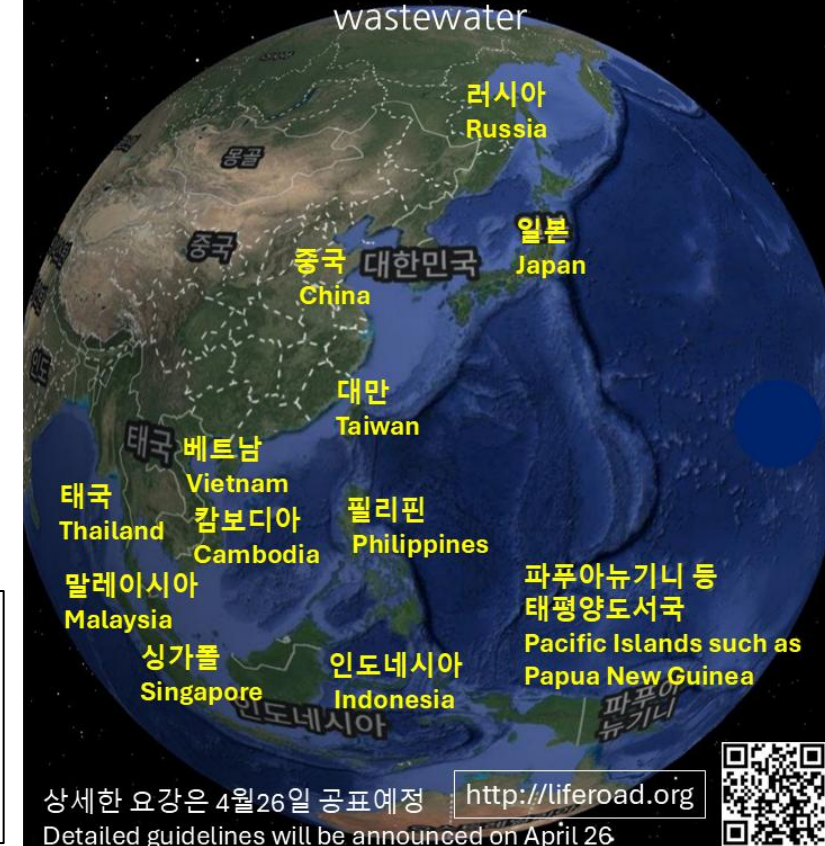
- 1) 일본정부는 계속 투기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정부에 좌우된다. 2026년 11월의 상하원 및 주지사선거가 중요하다.
- 2) 바다는 하나이므로 이 주제에 민감한 나라들의 민중이 있다. 그들의 주장을 모으고 연대하는 마당을 펼치는 것
- 3) 미국에 거주하는 지구촌 이주민들이 2026년 선거에서 투기 STOP공약을 요구하도록 하기
- 4)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혹은 한국여행을 예정자가 한국어로 '핵폐수투기STOP'을 주제로 발언하는 대회를 가지는 것.

웅변대회는 결과와 사후활용도 중요하지만 사전작업도 큰 의미가 있다. 응모과정에서의 국제적 홍보효과가 있다. 웅변자료(국문 영문)의 국제 공유함으로써 지구촌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 핵폐수투기STOP 한국어 웅변대회 STOP Dumping Nuclear wastewater SPEECH CONTEST in KOREAN LANGUAGE

2025년 10월 초순, ○○대학교  
Early October 2025, ○○ University

참가자격: 일본 핵폐수 직접영향권인 아래 국적  
외국인으로서 한국 체류자 혹은 여행을 계획중인 자  
Eligibility to participate: A person staying in  
Korea or planning to travel as a foreigner  
under the direct influence of Japanese nuclear  
wastewater



상세한 요강은 4월26일 공표예정  
Detailed guidelines will be announced on April 26

<http://liferoa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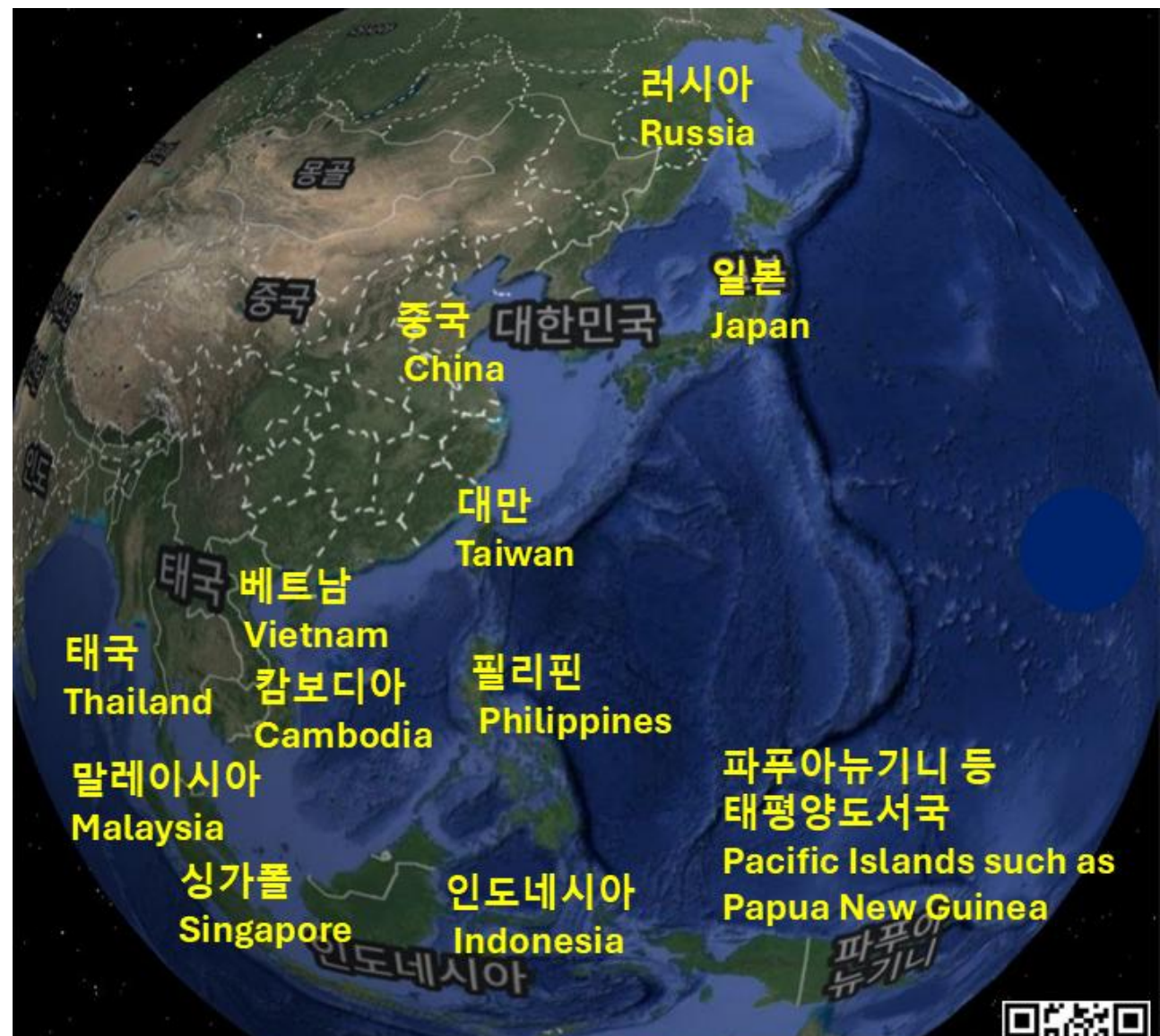
# 핵폐수투기STOP 한국어 웅변대회

## STOP Dumping Nuclear wastewater

### SPEECH CONTEST in KOREAN LANGUAGE

2025년 10월 초순, ○○대학교  
Early October 2025, ○○ University

참가자격: 일본 핵폐수 직접영향권인 아래 국적  
외국인으로서 한국 체류자 혹은 여행을 계획중인 자  
Eligibility to participate: A person staying in  
Korea or planning to travel as a foreigner  
under the direct influence of Japanese nuclear  
wastewater



상세한 요강은 4월26일 공표예정

<http://liferoad.org>

Detailed guidelines will be announced on April 26



# <모집요강> 핵폐수투기STOP요구 외국인 한국어 웅변대회

대회 일시: 2025년 10월3일(금) 오후2시~6시

대회 장소: ○○ 대학교

취지: 일본정부의 핵폐수 투기를 함께 막아내는 세계시민의 연대

참가자격: 한국에 거주하거나 혹은 한국여행을 예정하고 있는 다음 해안국가의 외국인  
(다음: 중국, 러시아,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태평양도서국(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등))

## 진행

1. 응모: 한국어로 일본핵폐수투기STOP스피치를 담은 동영상(1분짜리)을 다음의 메일주소로 보내기 ([leewysu@gmail.com](mailto:leewysu@gmail.com))(메일제목에 'GLOMA웅변응모'+이름+국적'을 표기할 것.
2. 응모마감: 2025년 7월31일 자정
3. 본선통과자 및 참여요강 발표: 8월15일(홈페이지 <http://liferoad.org> 게시 및 개인통보)

## 시상

1. 본선통과자(각국1인~2인)15인에게 참여비 지급(15인x30만원=450만원)
2. 입상자 상금규모: 우승1인200만원, 준우승2인x100만원, 3위 4인x50만원)= 계600만원



참가자격: 한국에 거주하거나 혹은 한국여행을 예정하고 있는 다음  
해안국가의 외국인

(다음: 중국, 러시아,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태평양도서국(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등))

진행

1. 응모: 한국어로 일본핵폐수투기STOP스피치를 담은 동영상(1분짜리)을 다음의 메일주소로 보내기 ( [leewysu@gmail.com](mailto:leewysu@gmail.com) ) 메일제목에 'GLOMA웅변응모'+이름+국적'을 표기할 것.

2. **응모마감: 2025년 7월31일 자정**

3. 본선통과자 및 참여요강 발표: 8월15일(홈페이지

<http://liferoad.org> 게시 및 개인통보)

**감사합니다**